즉시 배포용: 2016년 4월 28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뉴욕주 방위군 "할렘 지옥의 전사들"의 본거지인 HARLEM ARMORY의 입구 정면 재활을 위한 220만 달러 발표

New York Landmarks Conservancy로부터 뉴욕시의 건축 유산 보전을 위한 최고상을 받을 재활 프로젝트

뉴욕주는 미 국방부와 함께 5200만 달러의 주 및 연방 사업의 일환으로 이 아모리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약 1500만 달러를 투자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방위군 "할렘 지옥의 전사들"의 본거지인 Harlem Armory의 입구 정면을 재활하기 위한 22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Lucy G. Moses상의 영예를 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영예는 New York Landmarks Conservancy의 최고상으로서 뉴욕시의 건축 유산 보전을 위한 뛰어난 노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입구 정면 재활은 이 유서 깊은 건물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5200만 달러 사업의 일환입니다.

"Harlem Armory는 뉴욕주의 독특한 역사와 할렘 지옥의 전사들의 사연 많은 과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들의 희생과 유산을 기릴 뿐만 아니라 Armory가 향후 여러 세대 동안 경제적 및 교육적 자산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본인은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중요한 랜드마크를 보전하려는 우리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 상을 주신 New York City Landmarks Conservancy에 감사합니다."

정면 프로젝트는 건물 얼굴을 장식한 테라코타 300 조각을 교체하였고 난간벽의 기초를 보강하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사로는 5피트 높이의 두 아르데코 독수리 교체입니다 – 그 각각은 13개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구 탑의 코너를 장식합니다. 교체 테라코타 장식 요소와 독수리는 뉴욕주 서부 지역 기업인 Orchard Park 소재 Boston Valley Terra Cotta가 제작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1세기 이상 세라믹 제품을 제작해 왔습니다.

정면 공사의 총비용은 주정부와 연방 정부가 나누었습니다. 이 재활 노력에 주정부는 120만 달러를 대고 연방 정부는 100만 달러를 제공하였습니다. 완전한 아모리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 뉴욕주는 1480만 달러를 투자하고 미 국방부는 나머지 3740만

달러를 투입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아모리의 5th Avenue 정면 개수가 포함되었습니다. 그것은 East River와 Harlem River Drive를 굽어봅니다. 이 아모리는 제369 보병연대를 수용하기 위해 두 부분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중세 스타일 훈련 홀은 1924년에 완공되었고 아르데코식 행정 및 사무 단지는 193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5th Avenue 정면 복원을 위한 계획은 2012년 9월에 시작되었고 공사는 2015년 1월 2일에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의 정면 복원은 아모리의 142nd street 및 143rd street 쪽을 5th Avenue 쪽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아모리 업그레이드 공사는 2015년 초에 시작되었으며, 건물을 2017년 초까지 업그레이드시킨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 건물 내부 및 난방과 환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첨단 데이터/통신 시스템 설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설은 일부 강의실과 행정 공간에 첨단 시청각 장비도 가질 것입니다.

이 건물은 1985년에 뉴욕시 랜드마크로 지정되었으며 1994년에는 뉴욕주 및 국가 사적지 등록부에 등재되었습니다. 건물 모습 유지는 뉴욕주 군사해군업무과와 총무실을 위해 중요하였습니다. 총무실은 군사해군업무과를 대신하여 일하는 프로젝트 관리자로 활동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한 건축사는 뉴욕시 건축 엔지니어링 설계 회사인 STV였습니다.

“우리 아모리는 우리의 시민군이 훈련하고, 배치를 준비하는 장소이며, 비상시 작전 기지이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을 21세기 군사력의 니즈를 충족하도록 개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뉴욕주 부관감 Anthony German 소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모리는 지역사회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뉴욕시 동네에 속한 이 유서 깊은 구조물의 모습을 보전하기 원합니다. Landmarks Conservancy의 이 표창은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전설적 아모리를 위한 보전 및 개조 노력으로 군사해군업무과를 지원하는 것은 특권입니다”라고 **총무실장 RoAnn Destito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개조 복원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노력과 역사적 사명감을 고맙게 생각하며, 그것은 우리 주와 이 건물에서 근무하고 근무하신 모든 군인들의 자랑스러운 반영입니다.”

Charles B. Range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렘 역사와 유산의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 애써 주신 Cuomo 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한국전쟁 참전자로서 본인은 본국에서는 인종주의에 직면하면서도 용감한 영웅적 행동과 앵구심을 보여주신 할렘 지옥의 전사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본인은 제369 보병연대를 위한 헌장을 확보하여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들의 국가 기여는 결코 잊혀서는 안 됩니다. 이 220만 달러 업그레이드는 장애물을 부순 흑인 병사 이야기가 여러 세대의 미국인들에게 계속 영감을 고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STV 선임기사 Leonard Sher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축과 사적 보전업에

종사하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우수한 보전 작업을 증명하는 매우 영예로운 상입니다. 할렘의 건축 역사와 문화 유산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복원하고 보전하는 데 참여하고 Conservancy가 인정하는 도시 랜드마크의 엘리트 그룹에 속하여 영광입니다."

제369 보병연대를 수용하기 위해 건축된 이 아모리는 현재 뉴욕주 방위군의 제369 유지여단의 본거지입니다. 그 부대는 제1차 세계대전의 할렘 지옥의 전사들의 역사와 명예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369 보병연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뉴욕주 방위군 부대로서 제1차 세계대전시 프랑스 육군과 함께 싸워 유명해졌습니다. 그들은 분리된 미국 육군이 전투에서 흑인 병사들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랑스인 지휘 하에 복무하였습니다. 이 연대의 100여 명 연대원이 프랑스 십자무공훈장을 받았으며 부대는 6개월 이상 전투에 임하였습니다. 전투 중에 제369 보병연대의 군인들은 참호를 적에게 잃거나 퇴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대는 전투에서의 흉포성 때문에 독일 적수로부터 "지옥의 전사"란 닉네임을 받았습니다.

제369 보병연대의 가장 유명한 부대원은 Henry Johnson 병장으로서 1918년 5월 14-15일의 밤에 그의 정찰 위치에서 독일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Johnson과 그의 동료인 Needham Roberts는 주참호를 너머 배치되었는데 포로들을 수색하는 독일 병사 10명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Roberts가 투쟁 중에 무력화되자 Johnson은 그의 볼로 나이프로 무장하여 홀로 싸웠으며 그 과정에서 독일 병사 여러 명을 죽였습니다. Johnson은 프랑스 십자무공훈장을 받았지만 미국군 영예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 간과는 2015년에 Barack Obama 대통령이 명예훈장을 Johnson에게 사후 수여함으로써 시정되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